

러시아어 회화책 잘 팔린다

대기업서 연수강좌도...각 출판사들 교재 개발에 적극

“즈드라-스트부이제?(안녕하세요?)” “쁘라스찌-찌(실례합니다).” “발리쇼에스빠시보(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이 생소한 러시아어 발음이 익숙하게 들릴 날이 멀지 않은 듯하다. 시내 서점의 러시아어책이 꽂힌 구석진 코너에는 요즘 들어 부쩍 사람들의 발길이 찾아지고 있다.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러시아어나 중국어(북경어) 책을 찾는 사람이 서서히 늘고 있어요. 직장인들은 주로 무역실무와 관계되는 회화책을 찾고, 학생들은 문법교재를 찾고 있죠.”

일년내내 책이 꽂힌 자리를 바꾸지 않을 정도였던 러시아어교재 코너에도 요사이에는 책을 들춰보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교보문고 직원의 말이다.

현재 서점에 나와 있는 러시아어 교재는 7종, 사전류가 3종 있다. 이 가운데 회화책이 3종인데, 「표준 러시아어회화」(강홍주, 슬라브연구소)와 「러시아어회화」(한울가죽)는 발음익히기 기초부터 시작해서 생활과 밀접한 인사말, 날씨, 여행 등에 관한 응용회화를 위주로 하고 있다. 또 약간 단계가 높은 실용회화 교재로 「LIVING RUSSIAN」(한국의국어회화사)이 있는데, 테이프교재로는 유일한 것이다.

이밖에 일반교재로 「표준러시아어」(李徹, 슬라브연구소)와 「러시아어」(신아사), 「현대러시아어」(조남신, 한신문화사), 「러시아어 4주간」(문예서림) 등이 있다.

이들 책은 모두 80년대 초에 출판되어 러시아어 전공학생들에게만 조금씩 팔리던 것

이 올림픽을 전후해서는 각각 재판을 찍었을 정도로 많이 팔리고 있다.

사전 종류로는 「예문으로 익히는 러시아어사전」(슬라브연구소)과 「노한사전」(主流)이 각각 포켓용·대사전으로 나와 있다. 작년 5월 고려대 러시아문화연구소에서 펴낸 「노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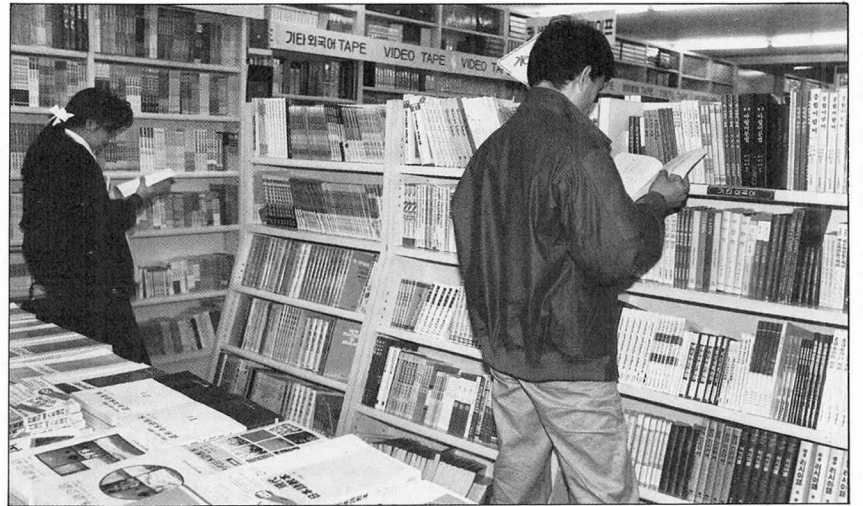
올림픽을 고비로 러시아어 교재가 부쩍 많이 팔리고 있다. 출판사들도 교재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어, 앞으로 더욱 다양하게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사전」은 서울대·고려대·외대 교수 14명이 공동집필한 것으로, 수록된 어휘량(11만어)이 풍부해서 소련 이외의 나라에서 만든 사전 가운데 가장 방대한 사전이다.

그러나 정작 러시아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아쉬움이 많다. 종류도 몇가지 안될 뿐더러, 그나마 오래 전에 만든 책이라서 현재의 실정에 맞지 않는 내용도 많다는 지적이다.

“공산권세계를 알고 싶어” 러시아어를 혼자 공부하기 시작한지 한달 정도 됐다는 회사원 이충호씨(29)는 “우리말로 된 교재는 몇권 없는데, 내용도 별로 신통찮아 영문 러시아어 교재를 구해다가 독학하고 있다”고 했다.

“발음부터 알 수 있도록 초보자에게 맞는 테이프나 레코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중의 책들은 단계별로 학습하기엔 종류가 너무 한정돼 있어 선택할 여지가 없더군요.”



한가했던 러시아어 코너에 요즘 들어 사람들의 발길이 부쩍 찾아지고 있다.

이처럼 혼자 독학하는 경우는 예외적이고, 대부분은 직장의 사내연수 등을 통해 러시아어를 익히게 된다. 대우·삼성 등 국내 대기업에서는 올 후반부터 러시아어 강좌를 개설, 하루 1시간씩 10여명 정도 교육하고 있다. 소련과의 경제교류에 대비한 인력확보를 위한 자기책임인데, 낯선 언어에 대한 호기심으로 사원들의 열의가 대단하다.

이 연수과정에서는 국내의 교재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원서로 강의하기도 한다. 국내의 러시아어회화 교재가 그만큼 다양하지 못하다는 얘기다.

러시아어 교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어교재에 주력해왔던 출판사들이 서둘러 러시아어 교재 개발을 기획하고 있다.

「실용회화, 해외여행을 위한 길잡이」를 시리즈로 펴내고 있는 청림출판사는 열번째로 러시아어편을 내기 위해 원고를 준비중이다. 명지출판사는 11월초에 「노어사전」을 발간한데 이어 현재는 동구권 언어인 루마니아어 교재를 제작하고 있다. 또 슬라브연구소는 상

업실무와 무역회화를 위주로 한 작문교재를 만들고 있고, 그밖에 고려원·청한 등에서도 러시아어 교재개발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급한 러시아어 교재의 출판은 또다른 우려를 낳게 한다. 외국어대학 러시아어과 姜興周 교수는 “러시아어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겐 발음부터 험난한 코스다. 구개음화·자음접변 등 기초발음법칙을 익히려면 영어식 발음기호도 정확치 않기 때문이다. 또 복잡한 격변화로 원형조차 찾지 못하면서 사전이용이란 불가능하다. 초보자를 위해 기초에 충실한 교재가 아쉽다”고 말하면서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실무나 실용적 회화만을 성급하게 습득하려는 것은 올바른 외국어학습 태도가 아니라”고 조언한다.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와의 다양한 접촉이 시작될 때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언어이다. 이제까지 소홀했던 소련 및 동구권 언어의 교육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더욱 체계적이고 충실한 교재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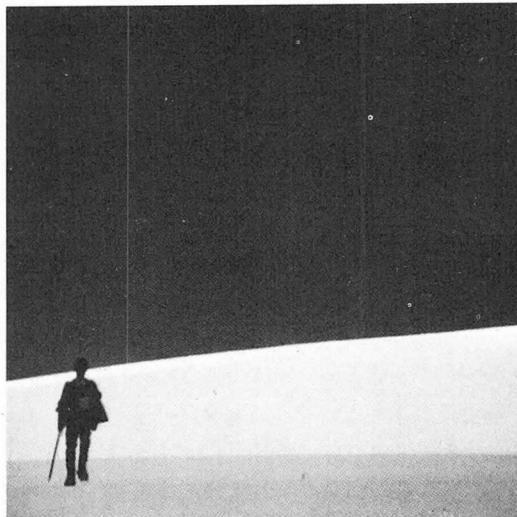
—김지원 기자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고 싶은 책
값 3,300 원

명상

*이 마크는 마음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를 본다(見)는 뜻입니다.

서울·종로구 관훈동 192-13 성지빌딩 502호
☎ 739-2520, 738-7709



가을에는 누구나 혼자가 된다.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앨버트 크라스너 / 이준호 옮김

저마다 여행을 떠나지만
돌아오는 길은 늘 공허할 뿐입니다.
무릇 모든 여행은 나에게로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멀리 떠나지 않아도
모든것을 분명하게 볼 것입니다.

**아직도
못 떠났습니까!**